



달력이 들려주는 4월의 지구촌 이야기

달력은 여행자에게 커다란 시계이자 애기보따리로 다가옵니다. 달력에는 한 달이라는 긴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하루하루 지나다 보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그 안에 공존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과 다가올 시간이 한 자리에 머무르는 셈이죠. 무수한 달력 중에서도 관광청, 항공사, 여행사 등 여행업계의 달력은 남다른 데가 있습니다. 세계 곳곳의 다채로운 풍경과 함께 그곳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엿볼 수 있으니까요. 위도가 다른 곳은 우리와 다른 계절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여행업계에서 그러모는 달력들이 4월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지 귀 기울여봅니다.

글/장성배 기자

1 캐나다관광청 캐나다는 12개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달력을 만들기에 더없이 좋은 조건입니다. 올해 달력 역시 매달 1개 주씩 돌아가며 각 주의 이름답고 고유한 풍경을 담고 있습니다. 4월은 캐나다 동쪽 끝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프린스에 드워드 아일랜드 주가 장식했습니다. 캐나다에서 가장 작은 주이자 소설 '빨강머리 앤(Anne of Green Gables)'의 배경지로 잘 알려진 곳입니다. 작가 루시 M. 몽고메리는 끝없이 펼쳐진 감자밭, 단풍나무 숲길, 고풍스런 목조 농가 등 프린스에 드워드 아일랜드의 고향마을인 캐번디시를 회상하며 고아 소녀 성장기를 써내려갔다고 합니다. 현재 캐번디시에는 소설 속 앤이 살았던 언덕 위 초록색 지붕의 그린 게이بل 농장이 재현돼 있습니다.

2 Spectacular landmarks that grace the skyline



2 말레이시아관광청 올해 달력은 '8개의 경이로움을 통한 여행'이 주제입니다. 잊을 수 없는 유적, 풍요로운 문화, 이국적인 음식, 끝없는 모험 등 말레이시아가 품은 다양한 측면의 경이로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월은 '장대한 건축물'의 표제 아래 술탄 압둘 사마드 빌딩과 페트로니스 트윈 타워가 장식합니다. 높다란 시계탑이 인상적인 술탄 압둘 사마드 빌딩은 19세기 후반 영국 식민지배 시절에 무어 양식으로 세워진 건물로 쿠알라룸푸르 메르데카 광장 앞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페트로니스 트윈 타워는 타이완의 타이베이 101빌딩이 세워지기 전까지 세계 최고 높이를 자랑하던 88층 건물입니다.

3 태국정부관광청 올해 달력은 왕궁과 사원 등 역사 유적 중심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4월은 태국 중부 차암에서 북쪽으로 약 65km 떨어진 소도시 페차부리(Phetchaburi)의 탐 카오 루앙(Tham Khao Luang)이 주인공입니다. 석회암 동굴 속에 조성된 사원으로 페차부리의 대표적 관광지 중 하나입니다. 페차부리는 아유타야 왕조 이전부터 태국 불교예술의 주요 근원지로 알려져오고 있습니다. 특히 왓 아이 수완나람과 왓 코 케오의 벽화는 당대 가장 뛰어난 수작으로 꼽힙니다.

4 한국관광공사 올해 달력은 계절감이 묻어있는 전국 관광 명소의 사진을 실고 있습니다. 4월은 제주 구좌읍 송당리에 위치한 아부오름이 장식하고 있습니다. 아부오름은 화산 폭발로 생겨난 기생화산으로 오름 높이가 51m에 불과해 누구나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 분화구 정상에 서면 한라산과 주변 오름들이 빛어내는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어 연중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분화구 안쪽에 위치한 삼나



무 군락도 매우 인상적입니다. 곳자왈 비자나무 군락지가 아부오름에서 가깝습니다.

5 하나투어 올해 달력의 주제는 '여행 그리고 추억'입니다. 낯선 여행지에서 조우한 풍경과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4월은 인도의 상징으로 일컬어지는 타지마할이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눈에 익숙한 정면 쪽에서 바라본 모습이 아니라 아무나 강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건축왕 샤자한은 아무나 강 건너편에 검은 대리석으로 타지마할과 같은 모양의 무덤을 또 하나 지을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가 재정이 거의 바닥나고 아들인 아우랑제브의 반란으로 그 꿈은 좌절되고 맙니다. 아무나 강 수면에 어리는 타지마할의 물그림자가 샤자한의 못다 이룬 꿈을 달력해주는 듯합니다.

6 인천관광공사 문화관광체육부는 2001년 한국방문의 해 선정을 시작으로 2004년부터 매년 지역방문의 해를 선정해오고 있습니다. 2009년은 인천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에 걸맞게 인천관광공사의 올해 달력은 특별 제작됐습니다. 인천 권역의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 관광 명소를 소재 삼아 사진을 그림처럼 처리해 선보이고 있습니다. 4월은 진달래꽃이 만발한 강화도 고려산이 주인공입니다. 강화군은 매년 진달래 개화시기에 맞춰 고려산 일대 및 고인돌 광장에서 '진달래 예술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월 11일부터 19일까지 주말마다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가족, 연인의 봄나들이 장소로 안성맞춤입니다.

7 일본정부관광국 올해 달력은 각 지역의 관광 명소 사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4월은 규슈(九州) 북서부에 위치한 사가현(佐賀縣) 요부코(呼子)입니다. 작은 포구인 요부코는 크고 맛 좋은 오징어가 명물로 통합니다. 마을 곳곳에 오징어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이 즐비합니다. 또 몸통이 두툼하고 다리가 미끈한 오징어를 줄에 걸어 말리는 풍경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8 아시아나항공 올해 달력은 색(色)이 주제입니다. '아시아나 함께 당신의 세상을 채색하세요'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국내외의 관광 명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4월은 미국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센트럴파크가 장식합니다. 초록빛깔 수목과 청명한 하늘이 시각적으로 시원한 느낌을 선사합니다. 물론 면적이 3.4km에 달하는 센트럴파크 내 산책로를 거닐면 상쾌함은 몇 곱절 더할 것입니다.

9 대한항공 올해 달력은 여행사진 공모전 수상작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4월은 동상 수상작인 '코끼리와 나무(크리스토퍼 리)'입니다. 12개 사진 작품 중에서 유일한 외국인 작품으로 케냐 남서부에 위치한 마사이 마라 국립 자연보호지역에서 촬영됐습니다. 광활한 초원 위에 밀라죽은 듯 보이는 나무 한 그루와 어디론가 바쁜 걸음을 옮기는 코끼리가 등장합니다. 풍경 대부분은 텅 빈 하늘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벌목, 경작, 밀렵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야생동물 개체 수가 급감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오늘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10 클럽메드 클럽메드는 알프스의 만년설이 펼쳐진 샤모니 몽블랑부터 카리브 해의 킨쿤까지 5개 대륙 가장 아름다운 지역에 80여 개의 리조트를 조성해놓고 있습니다. 올해 달력에선 그 면면을 확인할 수 있는데, 4월은 몰디브 카니 빌리지가 그 주인공입니다. 클럽메드의 대표적인 허니문 리조트로 아름다운 바다와 낭만적인 정취가 매력으로 꼽힙니다. 다시 한 번 허니문을 떠나고 싶게 만드는 곳입니다. ▶



5 하나투어 달력: 여행 그리고 추억



6 인천관광공사 달력: 인천의 아름다움



8 태국정부관광청 달력: 태국의 아름다움



9 한국관광공사 달력: 한국의 아름다움



10 클럽메드 달력: 휴식의 아름다움